2021
설날 가정예배

묵상기도 ———————————————————————— 다 같 이

찬 송 ————————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 다 같 이

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 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1-8 ———————— 인 도 자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설 교 ———————— 사랑이 없다면 … ———————— 인 도 자

합심기도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설교예문 사랑이 없다면…

어떤 할머니께서 설을 맞아 한 가지 유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봉투에는 천원 짜리 열 장을, 다른 봉투에는 오천원 짜리 네 장을, 또다른 봉투에는 오만원 짜리 한 장을 넣고 가장 어린 유치원생 손주 부터 봉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가장 어린 막내가 가장 두둑한 천원 짜리 봉투를 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는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는 할머니의 기발한 유머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선물의 내용 보다 선물의 크기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크기 보다 내용을, 담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유익과 덕 곧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은사의 목적 보다 은사의 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무익합니다(1~3절)'

모든 은사는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로 여겼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지나지 않으며 '탁월한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은사를 은사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요, 은사 자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도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조언도, 자녀를 위한 훈계도 사랑 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언행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국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과 가족, 교회를 보며 오늘의 모습보다 주께서 빚어가실 내일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남과 견주지 않으며,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진리 편에 서며, 성내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며 아무리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4~7절)

본문에 제시된 사랑의 특성을 하나하나 읊조려 보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은 사랑의 가치에 대한 찬사나 개념 정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열거한 예언이나 방언, 지식 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폐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8~9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참혹한 현실을 통해 지식의 축적, 물질의 축적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어느 책 제목처럼 영원히 남을 사랑을 위해 내게 있는 은사를 아낌없이 소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